

사랑
양장점





사랑양장점

장르 로맨스, 드라마
글/그림 은하 / 불곰
회차 1시즌 50회





작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사랑에겐
손님들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몇 가지 비밀이 있다.

**“나에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물로 보인다.”**

그런 사랑의 양장점에 조금 곤란한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02 시놉시스



사람들이 동물로 보여

이사랑에게는 비밀이 있다.

그건 바로 세상사람들이 동물로 보인다는 것!

다만 예외가 있다면.. 어린시절 친한 동생이었던 지호랑.

그런데 왜 고양이 손님의 얼굴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

여동생의 드레스를 맞춰주고 싶어요

고양이 손님 주까망에게는 착하고 예쁘지만, 오래 살지 못 한 동생이 있었다.

어린시절 동생은 까망이 선물한 드레스를 받고 너무나 기뻐했지만..

다시는 드레스를 줄 수 없었다.

동생의 사후에 매년 기성복 드레스를 샀지만,

올 해에는 이사랑의 양장점에서 맞춤 드레스를 사보려 한다.

누나 오랜만이야

어린시절 엄격한 부모님의 밑에서 누구와도 편하게 놀지 못했던 이사랑.

그녀의 유일한 놀이상대는 동생 지호랑이었다.

어린시절의 트라우마로 모든 사람들이 동물로 보였지만 지호랑만큼은 달랐다.

그러나 오랫동안 보지 못 했었는데, 양장점을 열고 그를 찾았다.

02 시놉시스

선보러 갈 커리어우먼 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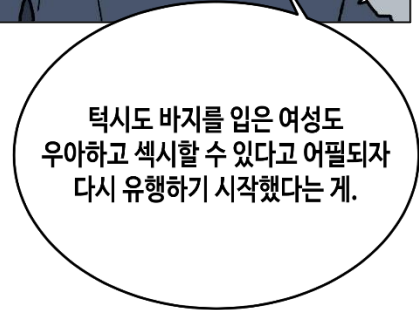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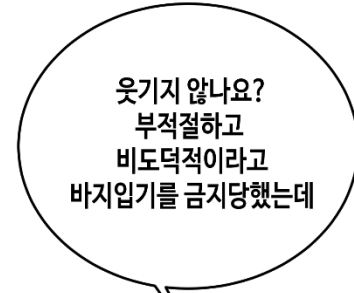
남부러운 대기업에 취직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산 오리손님
그러나 취직은 결혼한 남자들에게 밀리고 주위 여직원들은 결혼과 함께 사라졌다.
그녀도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선보러 갈 의상을 맞춰주세요.

선생님의 장례식에 갈 손님

학생시절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혼자가 됐다.
오갈 곳 없는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해 주신 선생님.
눈치밥을 먹어도 열심히 살며 노력을 증명했으나 돌아온 것은 더 큰 냉대였다.
선생님을 위해 집을 나오고 몇 년 후,
선생님의 장례식장에 가야 할 옷이 필요해 졌다.

결혼식에 턱시도를 입을 신부 손님

남들을 따라 결혼식에서 입을 드레스를 사려고 했다.
하지만 고양이 손님은 그러고 싶지 않다.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고, 턱시도를 입고서 당당하게 들어가겠다.
턱시도 맞춰주세요.



02 시놉시스



그렇더라도 호텔 정도는 데려다줄 수 있게 해주세요.



운동선수 손님

한눈팔지 않고 운동에만 집중했다.
패션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주지 않았다.
이제는 예쁜 옷을 골라봐도 될까..?

검은 고양이는 양장점주인을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 친구의 호의를 무시했다고 오해한 것과 다르게
지사랑의 친절하고 정 많은 모습을 보며 주까망은 점점 빠져든다.
손님과 사장님의 호칭 말고 이름으로 부리고 싶다.
어느새 그녀의 걸을 맴돌며 그녀에게 줄 선물을 사버렸다.

지호랑의 친구였던 이사랑 가게의 침입자

이사랑과 만나게 된 지호랑은 들떠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그러나 인기 많던 그를 싫어하는 친구는
지호랑의 그녀, 이사랑의 양장점에 침입했다.

03 캐릭터 소개



오늘
무거운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분위기가 전처럼
나쁘진 않았네.

고양이 손님도
동생애기를 해서
그런지 묘하게
부드러운 느낌이었어.

0이 몇개붙은
5장인데요?!



그것부터
말해주셔야죠!!

이사랑

양장점을 운영 중

사람들이 동물로 보임
어린시절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음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않으려 노력함

03 캐릭터 소개



주까망

소설 작가

어린시절 여동생을 많이 돌봐주지 못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음
이사람의 눈에 사람과 고양이의 모습을 반복함

03 캐릭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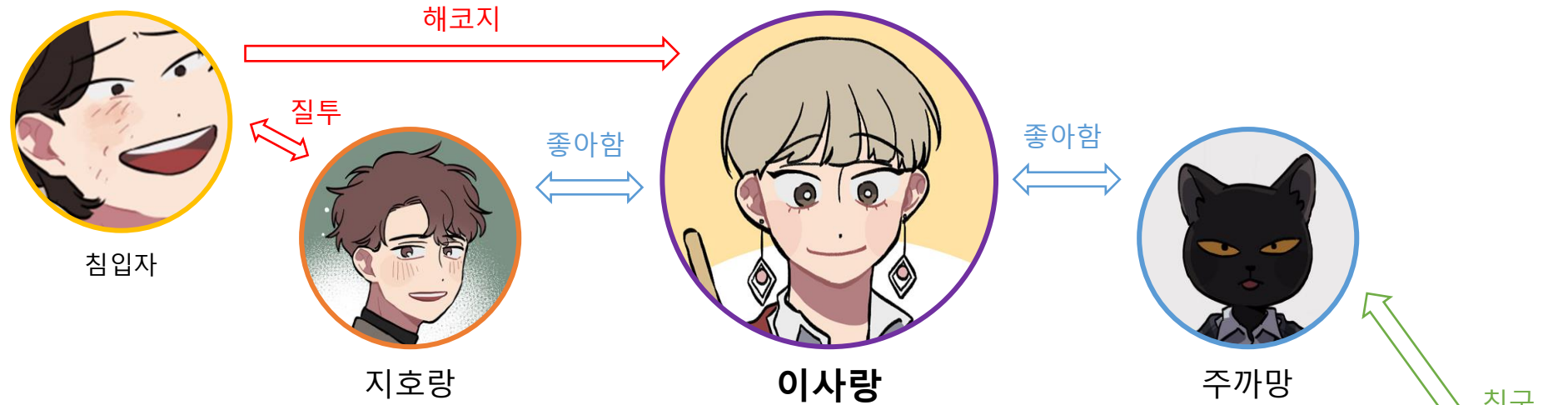


지호랑

대학생

어린시절 이사랑의 유일한 놀이상대
이사랑의 눈에 유일한 인간으로 보였음

04 캐릭터 관계도



고객관리
양장점 손님

친구



05 킬링 포인트



- ✓ 주연들의 스토리라인도 좋지만 틸틈이 나오는 손님들의 진실된 사람이야기가 강점
- ✓ 여주인공이 손님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매력이 독자들을 홀리는 매력
- ✓ 슷기 없는 주까망이 저돌적인 지호랑과의 경쟁에서 이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귀여움
- ✓ 한 번씩 사람의 얼굴로 돌아오는 주까망과 얼굴이 흐려지는 지호랑